학교도서관, 무엇을 갖춰야 하나

수준 있는 인력 투입과 전문영역에 대한 사회적 권한 동시 필요
학교 교육 중심 역할 맡을 전략과 프로그램 실행해야

김종성_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교도서관은 수십 년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났다. 그래서 아직은 모든 점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시설이나 환경에 비해 자료와 인적 요소 측면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질적 수준이 시설이나 설비 같은 물질적 요소보다는 인력이나 자료 같은 소프트웨어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보면 이런 한계는 우리 학교도서관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바른 인간을 기르는 사회적 제도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과 자료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크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력 문제는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학교도서관을 그 기본 원리와 원칙에 맞게 정규 사서교사가 전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서관 운영의 필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서관 문제의 가장 핵심 과제는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배치율을 높이는 것으로 인력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인력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선택을 자극하는 노력과 함께 인력의 내적 충실도를 높이는 것도 무척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충실한 전문 인력의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충분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전문 영역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분 처우 불안정, 사회 인식수준 및 교사로서의 의식도 부족

현재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력은 도서관 운영의 주도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원천적으로 신분과 처우에서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도서관에 배치된 1,5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사서가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정규 사서교사들도 승진과 보임 등에서 일반 교과교사들에 비해 차별적인 조건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과 관련한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의 권한과 책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는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에 대한 학교 사회의 인식과 이해가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몰이해로 학교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모든 과정이 정규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과 영역인 학교도서관이 소외되고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사회의 문화적 폐쇄성과 저열성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속성과 역할

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축된 학교 문화에서 학교도서관 인력은 주변적이며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도서관 인력의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아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다. 도서관 운영 실무 기술이나 지식의 측면보다는 독서교육이나 협력 수업과 같은 측면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아 초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된다. 말하자면 사서로서의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교사로서의 의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인력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전문 인력 배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안내 능력' 만으로 '전문 사서'라 부를 순 없다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제거되고 개선되어야 원활한 학교도서관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육적 성과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는 유보하고 전문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내부의 인력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선 학교도서관 인력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실무 기술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만을 도서관 운영자의 업무 영역으로 생각한다거나 그 업무 영역에만 한정하여 자신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하는 일, 입수된 자료를 분류하고 전산 DB로 구축하여 서가에 배치하는 일, 이용자에게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받으며 서가를 관리하는 일 등의 업무는 간단하지 않으며 노동 강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 영역에만 자신의 역할 범위를 고정한다면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고 제한될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자가 이런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의식과 실제 면에서 이런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 도서반이나 학부모 도우미의 협조를 받아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덜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교육자로서 의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서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지만,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교수학습활동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수준 높은 교육자의 식견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자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애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직 사회의 문화에 대한 적응성 등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과정에 원활하게 개입하고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불어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 담당자는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기본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형태의 자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디지털 자원에 대해 그 접근방법이나 소재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는 일은 굳이 도서관이나 사서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서관 운영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료에 대한 능력과 소양의 무게중심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보환경의 변화 국면에서 도서관 운영자는 정보자료의 접근을 안내하는 능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며 그 내용의 이해와 소화를 기반으로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의 성찰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 충실한 학교도서관 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준과 조건에 대해 탐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고 목소리만 높이고 정작 충실한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한다면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십 년 만에 학교도서관이 기지개를 켜는 이 시점에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내부에서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